▪ 추석 가정 예배 ▪

(추석 당일 오전 중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로의 초대 …… 인 도 자

추석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 시 138:1~2 …… 다 함께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찬 송 …… 591. 저 밭에 농부 나가 …… 다 함께

교 독 …… 105. 감사절(1) …… 다 함께

기 도 …… 맡은 이

성 경 봉 독 …… 하박국 3:17~19a …… 인 도 자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말 씀 …… **하나님은 나의 힘** …… 가족 중

추억나누기 …… (별세한 가족에 대한 추억을 나누는 시간) …… 다 함께

찬 송 …… 429.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 다 함께

주님의 기도 …… 다 함께

함께 나눌 말씀

하나님은 나의 힘

이번 추석은 해거리하는 나무 같습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이 왔는데도 거두어들일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모든 것이 조촐합니다. 명절 분위기도 안 나고, 온 가족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인사와 정을 나누기도 힘듭니다. 다소 쓸쓸하고 빈자리가 많은 추석은 하박국이 바라보았던 어떤 풍경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없고, 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풍경. 올해 우리 삶의 풍경도 그와 비슷합니다. 소출은 줄었고 곳간도 많이 비었습니다. 사람들의 만남도 줄어들었고 교회 모임도 이 전과 같지 못했습니다. 당연하게 '있던 것'들의 상당수가 없어졌습니다. 하박국이 보았던 풍경이 을씨년스러웠던 이유는 흉년이 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었던 제국의 공격 때문이었습니다. '있던 것'이 완전히 없어진 풍경은 제국의 군대가 만든 풍경이었습니다.

제국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이스라엘은 무기력했습니다. 살려 달라 부르짖어도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이스라엘을 버리신 듯했습니다.(1:2) 정의가 힘이 아니라 힘이 정의인 시대가 되니 사람들은 바른 믿음을 버렸습니다.(2:4) 힘을 가진 자들은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겼습니다.(1:11) 전쟁이란 환란으로 인해 이스라엘에서 없어진 것은 평안한 일상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을 뒷받침해주던 믿음과 정신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없어진 폐허더미 위에서 하박국은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즐겁게 구원을 노래하기에는 시대적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그렇게 자신 있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그가 주시는 힘을 의지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척박한 중에서 하박국은 푸르른 생기를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깊은 곳에서 길어 올린 생명의 기운은 많은 이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이 결핍과 단절의 시간을 잘 넘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원합니다.